

월드컵 기간 정보통신 강국 홍보효과 만점

각국 관광객 및 취재진 한국 IT 수준 호평

취재 백승오 기자



월드컵에 즈음해 정부의 각 부처들은 월드컵을 통한 국가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은 관련 산업의 홍보와 국가 이미지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에서 이번 월드컵을 통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부처는 정보통신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체들은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부터 각국 취재진들이 기사 송고나 사진 이미지 전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요 호텔 등에 초고속망을 점검하고 회선을 설치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무엇보다 개막식 행사는 정보통신 선진국의 이미지를 알리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월드컵과 함께 한 IT 홍보외교

정부는 월드컵에 때맞춘 IT외교를 시작했다.

정보통신부의 양승택 장관과 김태현 차관은 지난 5월 30일 '제1차 아시아 IT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인도네시아·일본·캄보디아·미얀마·싱가포르 등 5개 국 IT 장·차관과 잇달아 만나 IT 산업협력 약정(MOU)을 체결하는 등 올해 아시아 지역 IT 수출 200억 달러를 이루기 위한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로 한국통신 인도네시아 최대 통신기업 중 하나인 마하텔사와 전자정부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오는 11월부터 1억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본격 참가하게 됐다.

체험하는 한국 정보통신

홍보효과가 최대한 발휘되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하려는 대상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월드컵은 한국 정보통신이 얻은 유·무형의 소득은 그 값을 측정하기 어렵다.

이번 각국의 취재진은 향상된 축구실력에 놀라고 발전한 한국의 모습과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에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정보통신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은 IT 강국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까지 전했다.

우선 우리나라를 찾은 외신 기자들과 관광객들은 정보통신 기술 발달의 모습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 진가를 알 수 있었다. 가는 곳 곳마다 초고속망을 통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체험의 효과가 나타났다.

월드컵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찾은 외국인들도 관광공사 지하에 마련된 인터넷을 통해 자국으로 메일을 보내는가 하면 영문으로 된 한국 소개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놀라움으로 가득차 있었다.

정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월드컵 개최도시에 설치된 10개 IT 기술 체험관에는 하루 평균 4만 3000여명(외국인 4000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월드컵 개막 이후 17일간 연 인원 64만명(외국인 6만여명)이 찾아 우리 IT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외신 기자들의 호평

외신기자들은 한국의 정보통신에 대해 가장 많은 체험과 서비스를 받은 부류에 속한다. 그만큼 외신기자들은 정보통신에 대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와 월드컵 조직위는 외신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히 송고할 수 있도록 경기장에 무선랜 서비스를 실시하고, 월드컵 본부와 경기장에 초고속 인터넷 등 최첨단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해 언론 속보경쟁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IT체험관·대형 PC방·정보화 시범마을인 황둔마을 등 한국 IT현장을 직접 둘러보게 하는 IT테마투어는 지금까지 미국·독일·프랑스·중국·이탈리아 등 외신기자 7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PC방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한결같이 IT수준에 감탄했다.

세계인에 IT 집중 홍보 = 세계 180개 나라 25억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 첨단 IT와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목시킨 미래 세계의 비전을 역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한국 IT 발전 모습을 소개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기내에서 공항·숙소·경기장 등에 이르기까지 초고속 인터넷·디지털 TV·3세대 이동통신기술 등 우리 IT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파이낸셜 타임스,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등이 상암동 플라자를 현장 취재했고 요미우리 신문, 독일공영방송 ZDF, 중국 신화사통신 등이 한국 IT현황을 취재 보도했다.

이처럼 한국 IT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삼성SDS는 2억달러 규모의 중국 관광정보화 프로젝트를, KT는 1억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보화·IT 상품에 수출 상담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한편 월드컵 경기를 HDTV로 제작 중계하면서 5월 중 디지털 TV가 지난달 보다 60%가 늘어난 7만 5000대가 팔리는 등 디지털 TV가 빠르게 보급돼 디지털 방송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했다.

정통부의 IT월드컵 후속조치

정보통신부는 'IT 월드컵' 성공을 계기로 IT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통부 장관과 경제계 대표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IT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를 구성, IT 수출 실태를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또 초고속 인터넷, SI(시스템통합) 등 IT 수출 유망 10대 품목을 선정, 국가·상품별로 차별화된 수출 확대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정통부가 마련한 IT월드컵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 ◆ IT기업 해외진출 종합 지원체계 구축 차원에서 월드컵으로 얻은 국민적 자신감과 국가 이미지 개선효과를 바탕으로 IT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IT기업 해외진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 동유럽(9월), 중남미(10월), 중국·중동(11월) 등 신흥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로드쇼도 개최하는 등 해외홍보를 계속 추진해 IT하면 코리아라는 이미지를 유지·발전시킨다.
- ◆ '민관합동 IT 산업 해외진출 추진 위원회'를 구성(7월), IT 수출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독려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